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경험 -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중심으로 -

김지현* · 오진아** · 윤채민*** · 이자형****

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인 남성과 외국 여성간의 혼인 건수는 2007년에 총 29,140건으로, 2000년의 7,304건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고, 국제 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수는 78,019명으로 집계되었다(KOSIS, 2008).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이해 부족과 언어소통의 어려움, 차별이나 소외감, 인권유린 등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Han, 2006; Kim & Lee, 2007; Lee, J., 2007; Shin & Yang, 2006).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단순한 이민자 또는 거주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한국사회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으로 기능해야 하고 향후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Lee, J.,

2007).

Lim(2005)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사회로의 통합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녀 문제라고 하였는데, 자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유일한 혈연관계이며 그들의 가족 내 지위향상과 가족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자녀양육(Kim, K., 2006), 특히 5세 미만인 미취학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Jung, 2006). Lee(2005)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충분한 준비와 대책 없이 임신과 출산을 하고 있어 자녀양육은 더욱 큰 어려움이며 이에 따른 아동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아동기는 인격의 기초가 세워지고 인지, 정서, 신체적인 성장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며 사회적인 적응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로 이후 성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Spence, Najman, Bor O'Callaghan, & Williams, 2002),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였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과 박사과정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 인제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학과 교수

교신저자 오진아 : ohjina@inje.ac.kr

Kim과 Moon(2005)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아동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겪는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우울 성향은 비효율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나게 되지만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끈다는 것이다(Luster & Okagaki, 1993). 그리고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과 긍정적인 발달에 방해로 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양육효능감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Learner와 Galambos(198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낮으면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보여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주요한 지표가 되며 어머니의 양육경험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모국의 양육방식과 한국의 양육방식이 상이하고 양육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충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포함한 양육경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 연구에서 밝혀졌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발표된 바가 거의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 포커스그룹 심층면담을 통해 양육경험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다문화가정에서 주변인이 아니라 가정 내 어머니로서 주축이 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올바른 자녀양육을 통해 건강한 다문화가정의 정립과 자녀의 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용어의 정의

1)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국제결혼 이민여성', '여성결혼이민자', '결혼이민여성' 등으로 부르나 아직 학계에서 통일된 용어는 없다. Han(2006)은 이들 국제결혼 여성들은 한국사회에 편입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주장하였으나 Kim과 Lee(2007)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여성들이 바로 국적취득을 하여 정착하는 이민자가 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귀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넓은 의미를 뜻하는 '이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한 것에 동의하여 본 연구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으로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파악하고 동시에 심층면담으로서 양육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양적 질적연구의 병렬적/동시적 통합방법설계(parallel/simultaneous mixed method design)를 사용하였다. 이는 Tashakkorki와 Teddlie(2001)이 제시한

통합연구방법으로서 양적 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고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분석함으로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경험의 본질을 보다 잘 탐구할 수 있었다고 본다.

2. 연구자 훈련

본 연구에서 질적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철학세미나, 질적간호연구, 면담기법 등 질적연구 방법론을 습득하기 위한 학점을 이수하여 질적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은 질적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지에 게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면담기법과 분석과정을 위한 훈련과정을 거쳤다.

3.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면담이 가능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었다. 먼저 양적연구를 위해서는 환경적 영향을 감안하여 도시근교의 농촌지역인 G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등록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적에 따른 적응 실태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다양한 국적을 포함하였으나 일본, 인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은 참여자가 5명 미만이어서 제외하고 조선족, 필리핀, 베트남, 태국 여성 등 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질적연구에 있어 참여자의 선택기준은 연구주제를 경험해 온 사람 중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G군과 G시에서 한국의 거주기간이 2-12년이 되었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필리핀, 조선족, 베트남 여성 등 8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오랜 거주기간과 해당 지

역내 한글교실 교육 참여를 통해 한국어로 의사표현이 가능하였으며, 한국어로 표현이 어려웠던 일부 경우에는 본인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영어로 표현하거나, 모국어인 필리핀어로 말하면 같이 참석한 필리핀 출신 여성들이 한국어로 통역을 도와주었다.

4. 연구 도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측정은 양적연구로서 구조화된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하여 영어를 비롯하여 필리핀어,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등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작하였다. 언어의 번역은 각 언어를 전공한 석사수준 이상의 전문가가 일차 번역하였고, 한국어가 능통한 외국인 여성의 test-retest와 함께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함으로써 번역상의 차이가 가져올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1) 양육스트레스

Crnic과 Greenberg(1990)가 개발한 양육에 있어서의 일상적인 혼란과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Parenting Daily Hassles(PDH)의 20문항을 Ahn(2001)이 18문항으로 수정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보통이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5점에 해당하며,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분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Ahn(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7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7이었다.

2) 양육효능감

Floyd, Gilliom과 Costigan(1998)가 부모의 인지

된 양육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도구를 Ahn(2001)이 번역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원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서 원래 학령기 자녀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Parenting Confidence Scale과 부모역할에서 자신을 통제하거나 아이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Under Control Scale로 구성되었으나 Ahn(2001)이 우리나라 문화와 영유아의 연령에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Parenting Confidence Scale의 15문항 중에서 12문항을, Under Control Scale 14문항 중에서 3문항을 선택하여 총 15문항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최저 15점에서 최고 75점으로 분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효능감이 많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hn(2001)의 도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3 이었다.

5. 자료 수집 방법

양적연구를 위하여 200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상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협조를 구하였으며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가지고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고 본 연구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연구결과가 연구목적 이외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3개월에 걸쳐 대상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영유아 자녀가 있는 이들에게 배포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53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질적연구는 2008년 4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1-2차에 걸쳐 포커스그룹 심층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심층면담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었다. 심층면담시 언어는 한국어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질문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등이었다. 다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친절하고도 인내심 있는 어조로 서술적 개방형 질문에서 시작하였으며 양적연구와의 연계성을 갖기 위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질문으로 좁혀나가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양육에서 자녀의 건강관리 측면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녀가 아플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포함하였다. 심층면담 내용은 대상자의 동의하에 전부 녹음하였으며, 연구자가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 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1) 양적연구 자료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Ch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 일반적 특성과의 평균비교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하였으며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다.

2) 질적연구 자료

질적연구의 자료는 문서화된 내용을 Waltz, Strickland와 Lenz(2005)가 제시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은 연구현상을 솔직하게 기술하고 설명하고자 할 때 선택하는 방법이다(Sandelowski, 2000). 비록 근거이론이나 현상학적 방법처럼 이론적, 철학적 배경을

지니지 않고 있지만, 이 방법도 다른 질적연구방법과 마찬가지로 자료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 새로운 자료를 보충하면서 자료분석을 지속적으로 수정함에 따라 성찰적이고 상호작용적이 된다 (Graneheim & Lundman, 2004).

본 연구에서는 첫번째 단계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진술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의미 있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두번째 단계는 추출한 내용을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사한 내용을 분류하여 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고, 세번째 단계는 이를 토대로 서술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원래의 기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확인하였다.

또한 질적연구에 있어서 엄격성(rigor)의 문제는 매우 논란이 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 다른 패러다임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의 엄격성 평가도 다르다. 그러므로 질적연구에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의미와 문맥의 정교함, 융통성, 민감성을 추구한다. 또한 질적연구에서의 엄격성은 실제로 겪은 인간 경험을 밝혀 의미있게 기술하는 것으로 정해진 규칙이나 절차 등에 집착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Guba와 Lincoln(1989)의 4가지 기준, 즉 사실적 가치(true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에 의해 질적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질적연구의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 2인에게 확인하여 정련화 과정을 거쳤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본 연구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62.49±17.32점(문항평균 3.47점), 양육효능감은 평균 43.11±

9.82점(문항평균 2.87점)으로 양육스트레스는 중간 이상이었고, 양육효능감은 중간이하로 나타났다 <Table 1>. 대상자의 국적은 베트남(47.2%)이 가장 많고 필리핀(22.6%), 조선족(20.8%), 태국(9.4%)의 순이었는데, 국적에 따라 대상자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F=25.199, p=.000$)와 양육효능감($F=6.710, p=.001$)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양육스트레스는 베트남(4.23점)이 가장 높았고, 중국(3.11점), 태국(2.64점), 필리핀(2.56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은 그 반대의 순으로 베트남이 가장 낮았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1.02±5.25세였는데, 대상자의 나이와 남편과의 나이 차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았으며($F=5.658, p=.002$), 양육효능감은 낮았다($F=4.658, p=.006$). 대상자의 45.3%는 종교가 없었으며, 종교가 없는 군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나($t=-2.723, p=.009$), 양육효능감에는 차이가 없었다.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24.5%, 고졸이하가 75.5%이었으며 교육수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t=8.944, p=.000$)와 양육효능감($t=7.491, p=.000$)은 유의한 차이가 있어 고학력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한국어 실력은 4분류로 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어느 정도 되는 상급, 말하기, 듣기가 어느 정도 되는 중급, 듣기만 가능한 하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전혀 되지 않는 최하급으로 구별하였다. 대상자의 한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았고($F=8.713, p=.000$), 양육효능감은 낮았다($F=6.526, p=.001$). 경제적 상태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 경제적 상태가 낮은 군이 양육스트레스가 높았고($F=5.609, p=.006$), 양육효능감은 낮았다($F=15.709, p=.000$). 자녀의 수는 1명에서 3명이었으며, 자녀가 1명인 군이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나($F=8.496, p=.001$), 양육효능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Table 1> Car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i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3)

Variables	Characteristics	n(%)	Parenting stress (max-min : 20-100)		Parenting efficiency (max-min : 15-75)	
			M±SD	t or F (p)	M±SD	t or F (p)
Nationality	Thailand ^a	5(9.4)	47.60±5.03	25.199	45.60±4.61	6.710
	Vietnam ^b	25(47.2)	76.16±11.60	(.000)	39.32±6.81	(.001)
	Philippine ^c	12(22.6)	46.08±7.13	a,c<d,<b	52.25±7.76	b,d<a<c
	China ^d	11(20.8)	56.09±14.98		40.64±13.01	
Age(year)	21~25	6(11.3)	64.67±15.21	1.893	42.67±4.03	1.466
	26~30	19(35.8)	66.47±17.72	(.143)	41.74±10.28	(.235)
	31~35	16(30.2)	54.13±18.26		47.19±8.82	
	36~40	12(22.6)	66.25±14.01		40.08±11.48	
Age difference between couple (year)	3-9	16(30.2)	63.44±15.34	1.434	42.13±9.78	.192
	10-14	22(41.5)	58.18±18.42	(.248)	43.00±9.78	(.826)
	15≤	15(28.3)	67.80±17.10		44.33±10.45	
Duration of residence (year)	1-4 ^a	23(43.4)	70.43±15.83	5.658	38.53±8.96	4.658
	5-8 ^b	17(32.1)	62.06±16.78	(.002)	44.39±6.34	(.006)
	9≤ ^c	13(24.6)	49.00±12.88	a>b>c	49.54±11.44	a<b<c
Religion	Yes	29(54.7)	56.93±15.87	-2.723	44.93±1.95	1.499
	No	24(45.3)	69.21±16.89	(.009)	40.92±1.74	(.140)
Economical status	Middle high ^a	5(9.4)	41.24±19.76	-5.609	51.04±6.00	15.709
	Middle ^b	31(58.5)	60.00±18.12	(.006)	45.60±8.51	(.000)
	Low ^c	17(32.1)	71.65±9.10	a<b<c	35.65±6.90	a>b>c
Education level	University ≤	13(24.5)	44.69±2.56	-8.944	53.38±4.25	7.491
	≤ High school	40(75.5)	68.28±16.05	(.000)	39.78±8.74	(.000)
Korean language skill (level)	High ^a	8(15.1)	42.63±2.50	8.713	52.00±5.93	6.526
	Middle ^b	10(18.9)	54.60±14.10	(.000)	47.50±7.55	(.001)
	Low ^c	8(15.1)	67.63±11.92	a<b<c,d	41.48±7.64	a>b>c,d
	Very low ^d	27(50.9)	69.78±16.80		39.33±9.64	
Number of child	1 ^a	32(60.4)	69.47±16.46	8.496	42.34±8.38	.241
	2 ^b	18(34.0)	52.28±13.77	(.001)	44.28±12.79	(.787)
	3 ^c	3(5.7)	49.33±2.31	a>b>c	44.33±2.31	
Child's health	Healthy ^a	21(39.6)	67.38±16.56	1.440	39.00±8.81	3.821
	Moderate ^b	27(50.9)	58.96±17.31	(.247)	45.15±9.95	(.029)
	Weak ^c	5(9.4)	61.00±19.17		49.40±10.41	a<b<c
Program participation	Yes	30(56.6)	53.10±13.24	-5.722	45.67±10.25	2.245
	No	23(43.4)	74.74±14.15	(.000)	39.78±8.29	(.029)

다. 자녀의 건강상태를 건강함, 보통, 약함으로 구분하였을 때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의 건강이 약하다고 지각할 수록 양육효능감은 높게 나타났다(F=3.821, p=.029). 각종 양육관련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t=-5.722, p=.000)와 양육효능감(t=2.245, p=.029)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프로그램에 참

여한 경우 양육스트레스는 낮고 양육효능감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

<Table 2> Correlation among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iency

	Parenting stress r(p)
Parenting efficiency	-.703(.000)

능감은 매우 유의한 부적상관관계($r=-.703, p=.000$)가 있었다<Table 2>.

2. 양육경험

참여자는 필리핀 여성 6명, 조선족 1명, 베트남 1명이었고 연령은 20대 2명, 30대 4명, 40대 2명이었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4명, 대학교 졸업 4명이었다. 자녀수는 1명에서 3명이었으며, 막내자녀의 연령이 6개월에서 4세로 평균 33개월이었다.

본 연구 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경험은 3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양육주체에서 소외됨, 양육지원체제의 부족, 양육의 갈등과 타협이었다. 양육주체에서 소외됨은 시어머니/남편의 의사결정, 시어머니 양육방식 고수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양육지원체제의 부족은 가족의 도움 부족, 건강관리자원 이용의 어려움, 정보의 부족이나 잘 못된 정보제공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의 갈등과 타협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타협으로 문화적 차이 극복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각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3>.

1) 양육주체에서 소외됨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양육경험에서 도출된 첫 번째 주제는 '양육주체에서의 소외됨'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정착 초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

움 및 새로운 생활로의 적응 과정으로 인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주도를 하였으며, 특히 시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육아방식을 주장하였다.

(1) 시어머니/남편의 의사결정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자녀양육을 직접 맡아하면서도 건강상태 및 질병관리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그런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그 상황에서 소외되거나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양상을 나타냈다.

- (병원에 가면) 우리는 한국말 잘 못 알아들어 요 우리는 병원에 못 가게하고 일하게 하고 에이그.
- 나는 그냥 집에서 농사만 짓고 애들도 못 봐주고, 그냥 농사지어라 그러고
- 필리핀에서 우리 엄마, 우리 동생 젓이 쪽~ 나와. 이렇게 많이 쪽.. 여기는 아줌마들 정말 일 많아요. 힘들어서 우유 잘 안나와. 미역국 한 달 동안 계속 먹었어요. 애기가 젓이 모자라서 잉잉잉. 그래서 우유 먹이니까 첫 3개월 지나니까 모유 안 나와. 그래서 우유 먹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의사결정 기준은 한국 방식이었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신의 고유문화

<Table 3> Child-rearing experience of married immigrant women

Categories	Themes
Isolation from maternal ro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ther-in-law and husband's arbitrary decision on child-rearing practice · Mother-in-law's insisting on her child-rearing practice
Insufficient support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ck of family helps · Difficulties of using health care system · Lack of health care information/receiving misinformation
Conflicts and Compromise of child-rearing prac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flicts from cultural differences of child-rearing practice · Coping with cultural differences by compromise

방식으로 양육하고자 하면 이상한 방법이나 버려야 할 타국 문화라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방식을 따라할 것을 주장하였다.

- 애기들 어릴 때 제가 음식을 만들었어요. 소고기 가루, 햅쌀 가루 믹서기에 갈아서 양배추 넣고 당근 넣고. 어머니가 왜 그래? 왜 그렇게 만들었어? 한국사람 이런 거 안 먹었는데.
- 시어머니가 80세, 남편이 51세. 시어머니가 반대하면 남편도 반대하고.
- (남편이) 필리핀 따라하지 마. 한국식으로 해. 여기 한국이야.
-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필리핀에서 쓰는 약을 바르자, 신랑이 필리핀 약이라고 하지 말라고 해요.

(2) 시어머니의 양육방식 고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부모형제 및 고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자문을 구하게 된다. 이 때 시어머니는 보건소나 병원은 불신하면서, 주로 자신의 양육경험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은 시어머니의 의견을 따르기는 하였으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낯설고 생소하게 느꼈으며 시어머니의 현대 의학에 대한 불신감에는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 저기 시골에서 애기가 설사하면.. 어머니가 삶아서 애기 먹여 그러는거야. 꽃감을 먹이라는 거야.
- 옛날 사람은 방을 뜨겁게 (해야한다고)... 애기는 잠이 안와서 밤에 울기만 하고 그런데 옛날 분은 그냥 관찮다야. 잔뜩 덮어주고 잠깐 방문 열면 찬바람 들어와서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나고 병원 다니고.

- 시어머니는 옛날 분이어서 애들이 배가 아프다고 하면 그냥 문질러주라고 하고... 병원 간다고 하면 싫어해요. 병원은 약만 먹고 잘 안 낫는다고 해요.

2) 양육지원 체제의 부재

세 번째 주제는 ‘양육지원 체제의 부재’로, 가족의 도움 부족, 건강관리 자원 이용의 어려움, 정보의 부족/잘못된 정보 제공이 포함된다.

(1) 가족의 도움 부족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자녀양육을 어머니의 몫으로 생각하여 평상시에는 이들에게 맡기고 있었다.

- 다른 사람들은 시간 나면 아빠한테 잠깐 (아기를) 맡기는데.(중략)... 우리 신랑은 기저귀도 못 갈아주고 똥도 못하고 애기가 울 때 애기엄마한테 잠깐 가라 하지.. 집안일 같은 것은 신경 안 쓰더라고요.
- 한번은 엄마 시장 간다. 맛있는 거 사줄게 가만 있어. 집에 왔는데 애들이 없어서.. (중략).. 아 버님, 아버님 애들 어디 갔어요? 몰라. 나갔어.

(2) 건강관리 자원 이용의 어려움

건강관리를 위한 자원 이용에서도 물리적, 시간적, 언어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G군 여성의 경우 병원이 멀리 있고 교통편의 부족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임신 중에 모국어로 된 책자를 받은 여성도 있었으나 가사 및 농사에 쫓겨 스스로 책자를 읽거나 찾아보게 되지는 않았다. 또한 보건소 등지에서 배부한 여성건강 책자는 이주 여성이 아직 읽을 수 없는 한글로 써어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어려움이었다.

- 병원 갈 때 우리는 시골에 살아 병원가기가 어려워.
- 제가요, 책은 안 봐요. 보건소에서 줘요. 임신했을 때. (도움이 되나요?) 조금씩. 바빠서요. 조금씩만 봐요
- 우리는 중국에서 책 가져왔어요. 한국 것 책을 못 읽으니까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보내줬어요
- 의사는 좀 어렵게 말을 하고, 또 시간이 계속 뒤에서 애기들을 보니까 간호사에게 자세히 물어봐요

(3) 정보의 부족/잘못된 정보 제공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에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었다.

- 처음에는 아기 이유식 진짜 거짓말 안 하구요. 가는 사람마다 애기 이유식 중국에서 보내라고. 조그만 병 안에 담은 이유식 있잖아요. 한 번씩 먹는 이유식 유리병에 들어있는 거. 그거 우리 중국에서 진짜 많이 보내 왔어요. 가는 사람마다 부탁해서 가져와 가지고. 그 당시에는 여기서 파는 거 어디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 열날 때 마사지는 찬물로 해요.
- 소주로 몸 전체를 마사지해줘요. 임신했을 때 애기 보는 책이 있어요. 거기보고.

3) 양육의 갈등과 타협

자녀양육 방식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나타났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문화와 모국의 방식간에 적절히 타협하는 양상을 보였다.

(1)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자녀가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두드러졌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형제자매가 많은 가정에서 자랐기에 이유식에 관한 지식은 있었으나 모국에서 쓰는 익숙한 음식을 구할 수 없고, 한국에서의 조리방법과 재료가 달라서 어려움을 겪었다.

- 시어머니가 이유식 만드는 것 있잖아요. 진짜 이상하니까.
- 재료가 이름이 틀리니까 다른 것도 있고. 만드는 법도 다 틀려요. 우리는 죽을 끓일 때는 소고기 갈아가지고 죽을 끓이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소고기 갈아서 애들 죽도 끓이고 소금도 없고. 오만 양념을 다하니까 그것 자체가 다 틀리더라고요.
- 우리는 콩에서 영양분을 많이 생각하고. 여덟 가지, 열 가지를 콩을 막 섞어가지고. 여기는 재료가 없지만. 우리는 어린이 설탕을 써요. 그거는 얼음처럼 생겨가지고. 한방 쪽에서는 치료하는 약재라고 생각하면 되요. 그거를 넣어가지고 같이 끓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 우리는 야자를 쓰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런 거 잘 못 구해요.

건강관리 방식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필리핀 여성들은 자녀가 아플 때 우선 휴식을 취하게 하고, 음식섭취를 권장하였으나, 남편들은 투약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 애들 열 많이 있어. 애기아빠는 옷 다 훌쩍 벗어. 필리핀은 틀려. 가만히 덮어 있어. 한국은 정말 틀려요. 열 있으면 5일 동안 열 있어. 필리핀에서는 목욕 안 씻겨. 여기 한국의 애기는 목욕시켜요.

- 애들은 열날 때 밥도 잘 안 먹어요. 애기아빠는 약 먹여. 아니, 애기 밥 먹고나서 약 먹어야지. 아니 속이 안 좋아. 밥 안 먹고 약 먹이면.
- 여름에 애들이 학교 갔다와서 집에 들어와서 땀도 많이 나고 애 아빠가 빨리빨리 씻고가. 나는, 아니야. 조금 쉬었다~. 얼마나 머리 아프고 그러겠어. 나중에 병 나.
- 필리핀은 병원 안가요. 열약 있어요. 열 있어서, 산에 가면 열약 있어요. 그거 따다가 그냥 마셔.

(2) 타협으로 문화적 차이 극복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점차 한국사회에 적응해가고, 자녀 경험이 증가하면서 시어머니나 가족의 의견보다는 스스로 판단하여 자녀의 건강관리를 하였으며, 모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절충한 타협안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 아기가 콜록콜록 기침... 병원 안가고 약 안 먹이는게 빨리 낫는다고. 시어머니 말이 남편이 어렸을 때도 병원안가고 해도 병이 나왔다고. 약 먹이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 그런데 아이가 계속 나빠져서 열이 나고 어느 날 응급실로 갔더니 기관지염이라고.. 딸이 급성이라고. 빨리빨리 큰 병원 데려가라고..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1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딸이) 15 개월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기 아픈 다음에는 내가 '열 있어요, 병원에 가야해요'라고. 시어머니 눈이 동그래져서.
- 애기 열 있으면 37.5-6 되면 병원가야해요. 낮에는 괜찮아요. 밤에는 열 올라요. 37.6되면 병원 가요.
- (예방접종도) 애기수첩보고 맞추고, 의사선생님한테 언제와요 하고 물어보고..
- 제가 침대 생활만 했거든요. 애기가 침대에서

2번 정도 떨어지니까. 침대 없애고 이불 이렇게 두꺼운 거 깔고 애기 재웠어요.

IV. 논 의

과거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은 주로 한국 여성이 미국, 일본, 호주 같은 이른바 선진국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이주가 주목되어(Lee, Y., 2007), 2007년에는 베트남, 필리핀, 일본, 중국(한족), 캄보디아의 여성 순으로(KOSIS, 2008), 아시아 여성이 한국여성과 결혼이 힘든 중화층 남성과 가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남성과 아동, 노인 돌보기가 강조되어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데(Kim, Yoo, Lee., & Chung, 2006), 이들은 문화충격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한국사회에 적응을 시도하고 있다(Lee, Y.,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이나 사회적 노동의 성격상 '서비스 제공'의 성격을 갖지만(Lee, Y., 2007),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위치를 겸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남편이나 시어머니 등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외출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기간이 길어진다 해도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심리적, 정서적 위기를 겪게 된다(Ha Minh Thanh, 2005). 이러한 문화충격의 영향은 국제결혼으로 탄생하는 자녀 양육에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는 결국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래 한국사회를 고려하였을 때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경험

을 심층면접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양적조사로 보완하여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 나타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는 문항평점 3.47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한 Kim과 Moon(2005)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3.69보다 다소 낮았으나, Park(1997)의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2.90점, Jo와 Chong(2000)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양육스트레스 2.4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상자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베트남 여성 양육스트레스(4.23점)는 매우 높았고, 그 외 태국(2.64점)과 필리핀(2.56점) 여성들의 양육스트레스는 비교적 낮게 나왔는데, 국가별 민족성 등을 반영하여 보다 심도있는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양육효능감은 평균 2.87점으로, Kim과 Moon(2005)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3.47점보다 현저히 낮아 우리나라 어머니들에 비해 양육효능감이 낮았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상호반비례 하여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양육효능감은 낮았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대상자의 나이나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정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실력이 우수할수록, 경제적인 상태가 좋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고 양육효능감은 높았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각종 한국적응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양육스트레스는 낮고 양육효능감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더라도 각계에서 이들을 위한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의 수가 한명일 때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는데 일반적으로 초산모의 경우 양육경험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시어머니나 남편과의 갈등이 예측되기 때

문에 양육소외감으로 야기되는 양육스트레스 문제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질적연구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양육주도권을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빼앗기고 양육주체에서 소외됨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주제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이주 초기에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는 아픈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직접적인 자녀양육 행위에도 제한을 받았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의사결정도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주도하였다. 이러한 제한은 이주여성에게 어머니로서의 소외감을 느끼게 하며,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여부에 상관없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자신의 자녀양육에서 뒤로 물러나게 됨으로 인해 새로운 양육스트레스가 더욱 부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질적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양육경험의 두번째 주제는 양육지원체제의 부재였다. Lee, J.(2007)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 연구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주로 시집식구(22%)와 남편(16%) 등 가족의 조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정보를 구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8%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주 여성들이 언어적 어려움이 있고, 외부와의 사회적 교류가 적은 상태에서 양육에 대한 정보를 남편이나 시부모 등 가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Shin과 Chung(1998)은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원과 관련되어 있어서 사회적 지원이 낮으면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양육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이민자로서의 적응에 대한 문제와 자녀양육의 문제를 한꺼번에 짊어지게 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면밀히 살피는 것은 그들

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라고 사료된다. 특히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또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입장에서 국가와 기업, 민단단체, 연구기관에서 일치된 관심과 애정을 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경험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양육의 갈등과 타협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양육은 시대적, 문화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고국의 양육문화와 한국의 양육문화간의 갈등을 경험하지만 그러한 갈등 속에서도 타협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문화차이를 극복하고자 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양육효능감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아동을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취급하고 문제해결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듯이(Learner & Galambos, 1985)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았다는 양적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양육효능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양육과 출산은 가족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주로 여성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만, 양육은 시간, 문화, 공간에 따라 변화하며 특히 문화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아동에 대한 견해에 따라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Yoo, 1994). 양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본능적으로 이루어진다고보다는 학습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특히 자녀의 건강관리 교육요구도가 높으나 한국어 소통능력 미흡과 그로 인한 자녀 건강관리에 대한 부담의 어려움이 있다(Han, 2006). 양육스트레스 자체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양육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나타나거나, 적절히 해

소되지 못할 경우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Ahn, 2001; Jeon, 2006).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의 여성을 배우자와 며느리로 맞이한다는 것을 곱게만 보지 않는 이유 때문에 국제결혼을 한 부부와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그들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Kim et al., 2006). 그러므로 이들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기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한국어/한국문화 소개 위주의 내용구성이 대부분으로 자녀의 건강관리나 한국사회에서의 양육문화나 양육의 지식습득은 부족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제공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을 더욱 증진시킬 것이며 그 자녀들은 한국사회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당당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한국어를 비롯한 문화와 정서적 차이에 대한 교육은 물론 양육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사회적인 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양육경험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렬적/동시적 통합방법설계로 시행되었다. 이 연구방법을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양육경험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중간 이상의 양육스트레스를 갖고 있고 국적, 종교, 교육수준, 한국어 실력, 경제적 상태, 자녀수,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양육효능감은 중간 정도였으며 대상자의 국적, 거주기간, 교육수준, 한국어 실력, 경제적 상태, 자녀 건강,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심층면담의 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에서 나타난 양육경험으로 양육주체에서 소외감과 양육 지원체제의 부재는 양육스트레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파악되었고, 우리나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보다는 현저히 낮았으나 중간 이상의 양육효능감을 보임으로써 양육의 갈등 속에서도 타협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자녀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본 양적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대상자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으나 질적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양육프로그램 개발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에 대한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Ahn, J. Y. (2001).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 61, 1628-1637.
- Floyd, F., Gilliom, L. A., & Costigan, C. L. (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s: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 69(5), 1461-1479.
- Graneheim, U. H., & Lundman, B. (2004).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Concepts, procedures and measures to achieve trustworthiness. *Nurs Educ Today*, 24, 105-112.
- Guba, E. G., & Lincoln, Y. S. (1989). *The fo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 Ha Minh Thanh (2005). *A study on international marriages between Korea and Vietnam after 1992 -a case of cultural adjustment for Vietnamese women in Korea-*. Unpublished ma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Han, G. S. (2006). Family life and cultural encounter of foreign wives in rural area. *J Korean Soc Cultural Anthropol*, 39, 195-243.
- Jeon, S. M. (2006). *A study on parenting stress and child-care support needs of mothers with infants*. Unpublished ma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 Jo, Y. S., & Chong, Y. S. (2000). Maternal perception of children's temperament & parenting stress. *J Korean Assoc Human Ecol* 9(3). 271-281.
- Jung, S. H. (2006). *An explorative study on immigrant women's lives -focusing on the immigrant women in Hongseong-*. Unpublished ma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Soonchunhyang.
- Kim, K. S. (2006) *A study on the relaities of child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Unpublished mater's thesi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 Kim, M. J., Yoo, M. K., Lee, H. K., & Chung, K. S. (2006). Being 'Korean' wives: Dilemmas and choices of vietnamese and Filipino

- migrants. *J Korean Soc Cultural Anthropol*, 24, 15-193.
- Kim, M. S., & Moon, H. J. (2005).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 with young children. *Korean Home Econo Associ*, 43(8), 1-11.
- Kim, S. I., & Lee, J. Y. (2007). A study on social adjustment and leisure time change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Woman & Society*, 15, 21-44.
- KOSIS (2008). *Population and household*.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web site, <http://www.kosis.or.kr>.
- Lee, J. S. (2007). A study of childcare and education, fathers' childcare participation in a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J Korea Open Assoc Early Child Edu*, 12(6) 21-42.
- Lee, T. (2005). *A study on the family and the social network for the immigrated women: The focus about the women in Yeonggwa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ju University, Kwangju.
- Lee, Y. J. (2007).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protective factors on psychosocial adjustments of international couples' children. *Korean J Woman Psychol*, 12(2), 83-105.
- Lerner, J. V., & Galambos, N. L. (1985). Maternal role satisfacti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 temperament: A process model. *Develop Psychol*, 21, 1157-1164.
- Lim, A. (2005). *Family relationship and transnational network of Filipino wives married Korean husban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uster, T., & Okagaki, L. (1993).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ark, J. S., Park, O. I., & Kim, J. H. (2007). A study on family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for immigrant women. *J Korean Home Manage Associ*, 25(6), 59-70.
- Park, S. O. (1997). Parental stress of working mothers with 3-6 aged children. *J Korean Assoc Human Ecol*, 6(2). 37-45.
- Shin, G. H., & Yang, S. E. (2006). Marital conflicts of international families in Korea. *Korean Home Econo Associ*, 44(5) 1-8.
- Shin, S. J., & Chung, M. J. (1998).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J Korean Child Stud*, 19(1), 27-42.
- Sandelowski, M. (2000). Focus on research method: Whatever happened to qualitative description? *Res Nurs Health*, 23, 334-340.
- Spence, S. H., Najman, J. M., Bor, W., O'Callaghan, M. J., & Williams, G. M. (2002). Maternal anxiety and depression poverty and marital relationship factors during early childhood as predictors of anxie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ce. *J Child psychol Psychiatry*, 43(4), 457-467.
- Tashakkori, A., & Teddlie, C. (2001). *Mixed methodology: Combin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Thousand Oaks: Sage.
- Waltz, C. F., Strickland, O. L., & Lenz, E. R. (2005). *Measurement in nursing and health research 3rd*. New York: Springer Pub.
- Yoo, A. J. (1994). *Child rearing*. Seoul: Mooneumsa.

ABSTRACT

Key Words : Immigrant women, Child-rearing practices, Parenting stress, Parenting

Married Immigrant Women's Child-Rearing Experiences Including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Kim, Ji-hyun* · Oh, Jina** · Yoon, Chae-min*** · Lee, Ja-hyu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married immigrant women's child-rearing experiences including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using parallel/simultaneous mixed method design. **Method:** Participants of this quantitative study were 53 immigrant women in G City. Data was collected from May 1 to July 31 and analyzed using the SPSS 14 program. Qualitative data was collected from 8 immigrant women through focus group discussions from April, 22 to August 5, 2008 in G City and G Province. The data was analyzed using a content analysis method. **Results:** The mean score of parenting stress scale and parenting efficacy were 63.49 and 43.11 respective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nationality, length of stay, religion, economic status, education level, Korean language skill, number of children, and program participati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Parenting efficacy according to the nation, length of stay, economic status, education level, Korean language skill, children's health status, and program participation. Three themes emerged through this analysis: 1) Isolation from the maternal parent, 2) Insufficient support system, 3) Conflicts and Compromise of child-rearing practices. **Conclusion:** Married immigrant women experience double burdens of mothering. There is a need to develop educational and support programs for them.

*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 Master's cours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